



경기과학기술대학교 · 교양(AIDX)

AI프롬프트 디자인

4주차

AI 는 작업대에 올린 것만 쓴다

아는 것을 적어 주지 않으면,
AI 는 지어낸다.

오늘의 강의

1 교시에 맥락이 무엇인지와 자료 붙이기 두 가지를 배우고, 2 교시에 본보기와 내 문제 실습 진행

1교시



작업대에 올린다

컨텍스트 윈도우
배경 정보와 용어집

2교시



본보기와 내 문제

참고 자료로 말투 옮기기
맥락 블록 3종과 내 요청문

1교시

자료를 붙인다는 것

AI 가 모르는 것을 우리가 올려 준다.

컨텍스트 윈도우

배경 정보

용어집

지난주 요청문 5칸

① 역할: 너는 (역할)이다.

② 목표: (목표를 한 문장으로).

③ 대상: 읽는 사람은 (대상)이다.

④ 조건: (수량·포함·제외)

⑤ 형식: (받을 모양)

오늘 더하는 것은 한 가지

요청문 앞에 붙인다



배경 정보



용어집



참고 자료

회계 보고를 부탁받았다

동아리 회계 담당이 되었다

- 지난 학기 결산을 알려야 한다
- 받는 사람은 부원 전체다
- 가진 것은 지출 내역 표 한 장
- 무엇부터 쓸지 막막하다



회계 담당이 된 첫 주의 책상

맥락 없이 부탁하면

1. ChatGPT 를 연다
2. 아래 한 줄만 그대로 보낸다

지난 학기 동아리 회계 결산을 부원들에게 알리는 글 좀 써 줘.

ChatGPT 의 답

맥락 없이 한 줄만 보낸 요청에 대한 ChatGPT 화면

우리가 준 적 없는 값을 AI 가 채워 넣었다.

무엇이 빠져 있었나

1

동아리 이름

2

어떤 항목에 얼마를 썼는지

3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

4

어디에 올릴 글인지

네 가지 모두 AI 가 알아낼 방법이 없다.

우리는 아는데 AI 는 모른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것

- 동아리 이름과 활동
- 항목별 지출 금액

대화창에 올라간 것

- 회계 결산이라는 말 한마디
- 금액은 한 줄도 없다

이 두 열의 차이를 메우는 일이 오늘의 주제다.

최고의 셰프에게도 재료가 필요하다

- 세계 최고의 셰프를 데려온다
- 상한 재료만 건네준다
- 나오는 요리는 그 재료만큼이다
- AI 도 받은 재료 안에서 만든다

재료가 상했으면 어떤 요리사도
좋은 요리를 내지 못한다.



맥락이란 무엇인가

맥락 (Context)

AI 가 요청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방향을 잡도록 돕는 정보

요청문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적는 자리,
맥락은 AI 가 알아야 할 사실을 주는 자리



작업대 위에 올려 둔 자료가 곧 맥락이다

"제품에 대한 글을 써 줘"

(✗) 제품에 대한 글을 써 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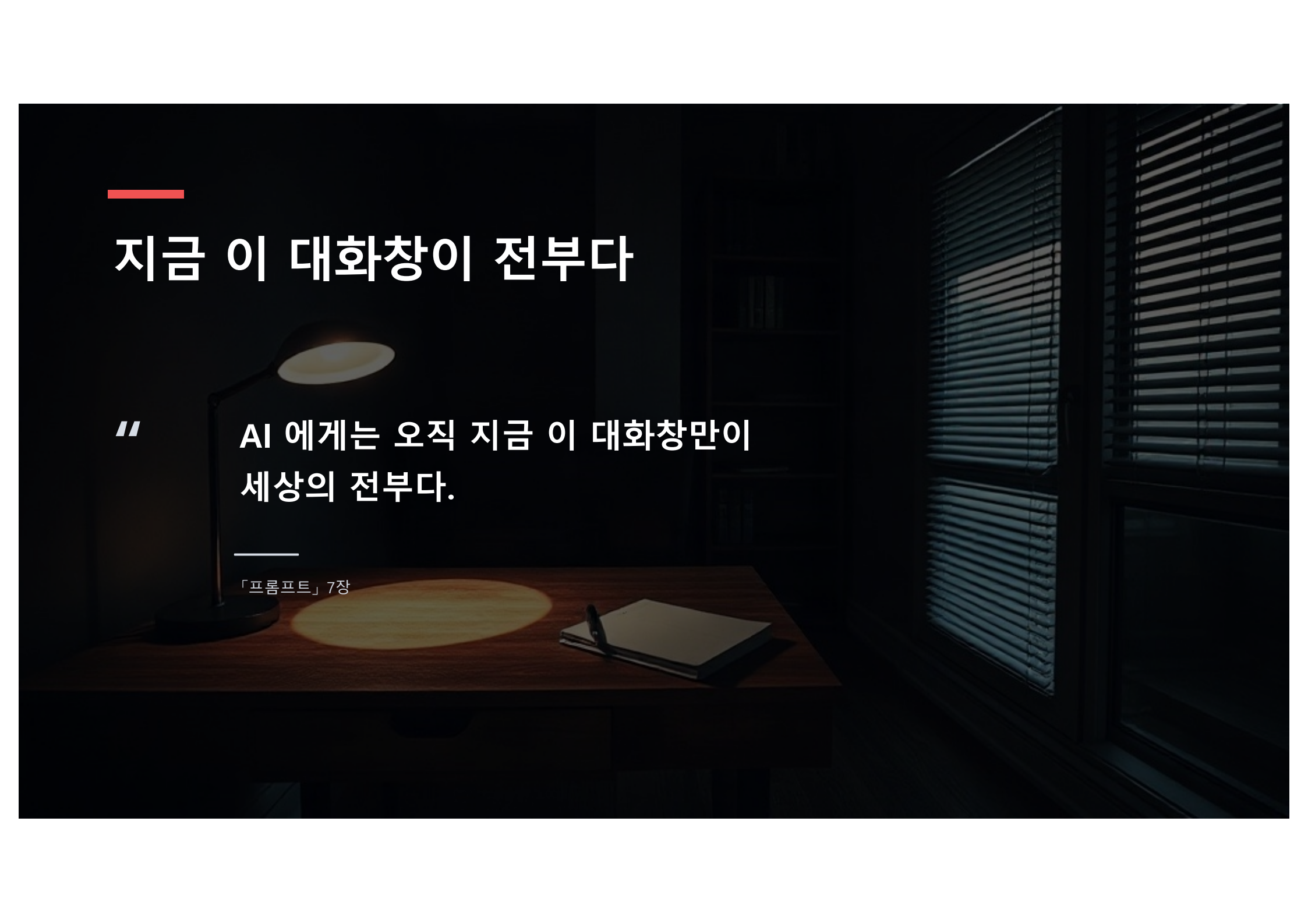


(○) 우리 회사에서 출시하는 친환경 텀블러를 20대 여성 대상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AI 가 알게 된 것

- ✓ 제품은 친환경 텀블러
- ✓ 대상은 20대 여성
- ✓ 채널은 인스타그램



A dark, moody photograph of a room at night. In the foreground, a wooden desk is illuminated by a warm, yellow desk lamp. On the desk, there is a closed book and a pen. In the background, a window with horizontal blinds is visible, with some light filtering through. The overall atmosphere is quiet and contemplative.

지금 이 대화창이 전부다

“

AI 에게는 오직 지금 이 대화창만이
세상의 전부다.

「프롬프트」 7장

컨텍스트 윈도우

Context Window · 한 번에 읽고 기억하는 범위



한 번에 읽는 범위

한 번에 읽고 기억하는 만큼이다.
지금 이 대화창에 올린 것이 그 안에 들어간다.

교재가 쓰는 다른 이름

단기 기억

방금 들은 것만 붙잡고 있다

작업대

올려 둔 것만 손에 잡힌다

작업대 위에 올린 것만 쓴다

작업대 위

지금 대화창에 붙여 넣은 자료

바닥 상자

올리지 않으면 쓰이지 않는다

무엇을 올릴지는 우리가 정한다.



다른 대화창은 기억 못 한다



어제 쓰던 창과 오늘 연 창

창이 다르면 남이다

- 어제 대화창에서 자료를 정리했다
- 오늘 새 창을 열고 그걸 물었다
- AI 는 무슨 말인지 모른다

대화창 하나가 작업대 하나다.

그래서 매번 올려야 한다

오늘의 한 줄

원하는 결과와 관련된 것은 매번 대화창에 올려야 한다.

관련된 것 전부

빠짐없이 대화창에

지난번 말은 통하지 않음

새 대화창을 열 때 생기는 일

새 창은 빈 작업대다

- 새 창에는 앞 대화가 없다
- 자료는 메모장에 따로 보관한다
- 길어지면 자료만 새 창에 옮긴다
- 옮길 때는 블록째로 복사한다

메모장에 있으면 새 창에서도 그대로 붙여 넣는다



앞 창에 올린 자료는 따라오지 않는다

피자 치즈에 접착제를 넣으라고 했다

2024년 5월, 구글 검색의 AI 요약이 피자 치즈가 흘러내리지 않게 접착제를 섞으라고 답했다.

출처는 11년 전 온라인 게시판의 농담 글이었다. AI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그 글이 작업대 위에 올라가 있었다.

구글은 공식 블로그에서 사례를 인정했다



무엇을 올렸느냐가 답을 정한다



먼저가 아닌 것

모델을 바꾸는 일

모델을 바꿔도 재료가 없으면 답은 달라지지 않는다.



먼저인 것

작업대에 올릴 것

무엇을 올렸는지가 답의 품질을 먼저 정한다.

내가 고르지 않으면 남의 농담이 올라간다.

오늘 배울 세 가지가 작업대에 올릴 재료다.

맥락이 가져오는 것 세 가지



하나

정확도

빈자리를 지어내지 않는다.



둘

효율

걸러내는 일이 줄어든다.



셋

맞춤화

읽는 사람 눈높이에 맞는다.

셋 다 오늘 실습에서 화면으로 확인한다.

하나. 추측하지 않는다

정보가 없으면

빈자리를 그럴듯한 값으로 채운다.

사실을 주면

지어내지 않고 받은 값을 쓴다.



빈칸이 남으면 누군가 채워 넣는다.

둘. 걸러내는 일이 준다



엉뚱한 답을 골라내는 시간

고르는 일이 줄어든다

- 맥락이 없으면 엉뚱한 답이 섞인다
- 그걸 골라내는 데 시간이 든다
- 다시 물어보는 횟수가 준다
- 한 번에 쓸 만한 답이 온다

셋. 눈높이가 맞는다

대상을 안 주면

누구에게나 맞는 말이 온다.

대상을 주면

1학년이 알아들을 말이 온다.

목적은 안 주면

설명만 길어진다.

목적은 주면

바로 올릴 글이 온다.

지난주 요청문 ③ 대상 칸과 이어진다.

"요약해 줘" 와 맥락을 준 요약

(X) 맥락 없이

요약해 줘

밝힌 것

없음

(O) 맥락을 준 요청

이 보고서는 무엇에 대한 것이고
누가 무엇에 쓸 것인지 밝힌 뒤
세 가지 핵심으로 요약해 줘

밝힌 것

보고서의 주제

읽을 사람과 쓸 곳

무엇을 누가 쓸 요약인지 밝히면 요약의 결이 달라진다.

맥락을 주는 세 가지 방법



방법 ①

**자료를 직접 붙
인다**



방법 ②

**낯선 말을 풀어
준다**



방법 ③

**본보기를 보여
준다**

이 세 가지가 뒤에 나올 맥락 블록 3종이 된다.

방법 ① 자료를 직접 붙인다

AI 가 알아야 할 것을
내가 복사해 붙인다.

- 인터넷에서 찾게 하지 않는다
- 내가 가진 자료를 복사해 붙인다
- 붙일 곳은 요청문 앞이다
- 블록 이름을 대괄호로 적는다

붙이는 자리

[배경 정보]

내가 가진 자료를
여기에 넣는다

요청문

지난주에 만든 5칸 요청문

(X) 신제품 메일 좀 써 줘

요청문

우리 신제품 스마트 머그 마케팅 이메일
좀 써 줘

- AI 가 아는 것: 머그라는 말뿐
- 기능도 가격도 주지 않았다

📖 교재 원문



요청에 담긴 정보는 '머그' 라는 말뿐

(○) 제품 설명서를 붙인 요청

우리 신제품 스마트 머그 마케팅 이메일 좀 써 줘

[제품 설명서]

제품명:

기능:

특징:

가격:



예시 제품 · 스마트 머그

A dark, moody photograph showing two hands exchanging a stack of papers. The hands are positioned in the center, with one hand holding the papers and the other reaching to take them. The background is blurred, showing what appears to be a desk and some papers. The overall tone is professional and focused.

오늘의 한 줄

찾게 하지 말고 준다

- 찾게 하면 엉뚱한 것을 찾아온다
- 내가 가진 것을 그대로 붙인다
- 붙이는 데 드는 시간이 가장 짧다

회계 보고에 붙일 자료

📊 지출 내역 표

📢 지난 학기 공지 글

📖 회칙의 결산 조항

셋 다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



오늘 쓰는 서비스와 접속



ChatGPT

GPT-5.6 Sol

chatgpt.com



Gemini

Gemini 3.8 Flash

gemini.google.com



Claude

Claude 4.6 Sonnet

claude.ai

화면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Sonnet 4.6 · 3.8 Flash

자료 없이 보내 보기

할 일

- Claude 를 연다
- 아래 한 줄만 그대로 보낸다
- 답을 지우지 말고 화면에 둔다



보낼 한 줄

중고 거래 앱에 올릴 노트북 판매 글 좀 써 줘.

자료 없이 받은 답

Claude

자료 없이 보낸 요청에 Claude 가 답한 화면

사양과 가격 자리가 알아서 채워져 있다.

자료를 붙여 보내 보기

중고 거래 앱에 올릴 노트북 판매 글 좀 써 줘.
아래 자료를 먼저 읽어 줘.

요청문은 앞 장과 같다.
달라진 곳은 배경 정보
블록 하나다.

[배경 정보]

2023년 3월에 산 13인치 노트북이다. 무게는 1.2킬로그램.
배터리는 완충하면 여덟 시간쯤 간다. 충전기와 원래 상자가 있다.
바닥면에 3센티미터쯤 굽힌 자국이 하나 있다. 액정과 자판은 멀쩡하다.
수리를 맡긴 적은 없다.
살 때 값은 120만원이었고 85만원에 팔려고 한다.

자료를 붙여 받은 답

Claude

배경 자료를 붙인 요청에 대한 Claude 의 답 화면

우리가 준 값이 그대로 판매 글에 들어갔다.

앞뒤 대조

1

무엇을 지어냈나

없는 사실이 들어갔는지 본다

2

숫자가 들어갔나

우리가 준 값이 그대로 있는지 본다

3

바로 쓸 수 있나

고치지 않고 쓸 수 있는지 본다

같은 서비스에 같은 요청, 자료 한 덩어리만 달랐다.

자료 한 덩어리가 바뀐 것



**빈자리는
채워진다**

모르는 자리를 추측으로 메운다.



**그렇듯해서
더 위험하다**

그렇듯한 오답은 걸러내기 어렵다.



**자료를 주면
그 값을 쓴다**

붙여 준 자료 안의 값으로 답을 만든다.

같은 서비스에 같은 요청이었다. 바뀐 것은 붙인 자료 한 덩어리다.

방법 ② 낚신 말을 풀어 준다



용어집을 앞에 붙인다

줄임말과 프로젝트 이름을 앞에서 풀어 준다

.

무엇을 풀어 주나

- 줄임말과 프로젝트 이름
- AI 가 알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 앞부분에 용어집을 만든다
- 한 낱말에 한 줄이면 된다

우리끼리 쓰는 말일수록 먼저 풀어 준다.

(X) 그 프로젝트 보고서 요약해 줘

요청문

피닉스 프로젝트 2분기 보고서 요약해 줘.
TFR 팀의 성과가 중요해.

사람에게 말했다면 통했을 문장이다.

AI 가 모르는 것

피닉스 프로젝트

무엇인지 모른다

TFR 팀

무엇인지 모른다

(○) 용어집을 붙인 요청

(○) 시작하기 전에 아래 [용어집]을 먼저 학습해 줘



[용어집]

- 피닉스 프로젝트: 서버를 클라우드로 옮기는 핵심 프로젝트
- Q2-KPI: 2분기 핵심 성과 지표, 서버 가동률 99.9%
- TFR 팀: 장애 발생 시 가장 먼저 대응하는 기술 지원팀

낫선 말 세 개를 한 줄씩 풀어 먼저 읽힌다.

AI 가 되물을 때

방법 ② 용어집



용어는 알아들었다

붙여 준 한 줄 설명은 그대로 쓰였다.

방법 ① 배경 정보



본문은 주지 않았다

요약할 본문이 없어서 달라고 되물었다.

용어집은 통했고 배경 정보가 빠진 것이다.

되묻는 것이 좋은 신호인 이유



지어낸 답

모르는 것을 아는 척
메워서 내놓는다.



되묻는 답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한 것이다.

되묻기는 빠진 자료가 무엇인지 알려 준다.

우리 학교에서만 통하는 말



전공 줄임말



건물 별칭



학사 용어



밖에서는 한 번에 통하지 않는다.

용어집에 넣을 것 세 가지



줄임말

글자를 줄여 부르는 말을 풀어 쓴다.



우리끼리 붙인 이름

우리 쪽에서만 쓰는 이름을 적는다.



같은 말인데 뜻이 다른 것

밖에서는 뜻이 다른 말을 적는다.

용어집 없이 보내 보기

Gemini 를 연다

아래를 그대로 보낸다

답을 지우지 말고 화면에 둔다

보낼 프롬프트

아래 공지를 1학년 신입생도 알아듣게 세 줄로 바꿔 줘.

[공지]

계절수업 수강 신청은 포탈에서, 정정은 학사지원팀 방문 접수다.

전필 미이수자는 재수강 신청 전에 지도교수 상담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용어집 없이 받은 답

Gemini

용어집 없이 보낸 요청에 대한 Gemini 의 답 화면

낯선 말을 그대로 옮기거나 뜻을 짐작해 바꿨다.

용어집을 붙여 보내 보기

아래 공지를 1학년 신입생도 알아듣게 세 줄로 바꿔 줘.
아래 자료를 먼저 읽어 줘.

[용어집]

계절수업: 방학 동안 짧게 여는 수업.

포탈: 학교 누리집의 학사 시스템. 수강 신청과 성적 조회를 여기서 한다.

전필: 전공 필수 과목. 반드시 들어야 졸업한다.

정정: 신청한 과목을 바꾸거나 취소하는 것.

[공지]

계절수업 수강 신청은 포탈에서, 정정은 학사지원팀 방문 접수다.

전필 미이수자는 재수강 신청 전에 지도교수 상담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용어집을 붙여 받은 답

Gemini

용어집을 붙인 요청에 대한 Gemini 의 답 화면

같은 공지 앞에 용어집 네 줄만 붙여 다시 보낸 결과다.

한 줄 설명이 바뀐 것



짐작한다

모르는 말도 아는 것처럼 쓴다.



제대로 쓴다

한 줄 설명을 붙이면
그 뜻대로 쓴다.



짧아도 된다

쓰는 말만 한 줄씩 적으면 된다.

낯선 말을 그냥 두면 AI 는 아는 척을 한다.

2교시

본보기와 내 문제

말투는 설명보다 본보기가 빠르다.

참고 자료

맥락 블록 3종

나의 요청문

방법 ③ 본보기를 보여 준다

내용뿐 아니라 말투와 분위기까지 정하고 싶으면, 따라 할 글을 보여 준다.



말투

내용만이 아니라 말투까지 정한다.



짜임새

분위기와 글의 짜임새가 함께 따라온다.



붙이기

따라 할 글 한 편을 그대로 붙인다.

이 블록의 이름은 [참고 자료] 다.

(X) 친근한 말투로 써 줘

교재 원문 요청문

재택근무의 장점에 대한 블로그 글을 친근한 말투로 써 줘

무엇이 빠졌나

- 친근함의 기준을 주지 않았다
- 받은 글은 무난하고 밋밋하다

친근하다는 말은 사람마다 다르게 읽힌다.

(○) 참고 글을 붙인 요청

요청문

아래 [참고 글] 의 말투로 써 줘

[참고 글]

교재의 잠옷 바지 도입부 두 문장

99

본보기

설명 대신 본보기를 준 것

그래서 받은 글의 말투



말끝

참고 글처럼 부드럽게
끝난다.



부르는 말

독자를 부르는 방식이
같다.



문장 길이

짧은 문장이 이어진다.

문장을 베낀 것은 아니다.

말투는 설명보다 본보기가 빠르다



설명으로 말하기

친근하게 써 달라고
열 번 쓴다.



본보기로 보여 주기

친근한 글 한 편을
그대로 붙인다.

붙인 쪽이 더 정확하고 더 짧다.

본보기로 쓸 수 있는 것



내가 전에 쓴 글



잘 썼다고 생각한 남의 글



공식 양식 문서



받아 본 좋은 메일



잘 쓴 선배 글 한 편

1

잘 썼다고 소문난 선배 자기소개서를 한 편 구한다

2

요청문 뒤에 참고 자료로 붙인다

3

내 이야기로 다시 쓰게 한다

가져오는 것은 문장이 아니라 짜임새다.



선배 글은 옆에 두고, 내용은 내 것으로

베끼기와 참고는 다르다



가져오는 것

말투와 짜임새를 가져온다.



가져오지 않는 것

문장을 가져오지 않는다.

- 남의 글을 붙일 때 출처를 밝힌다.
-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하지 않는다.

본보기를 붙여 보내 보기

동아리 활동 후기를 학과 게시판에 올릴 글로 써 줘.
아래 자료를 먼저 읽어 줘.

[배경 정보]

지난 토요일 교내 강당에서 코딩 동아리 발표회를 했다. 팀 여섯 개가 각자 만든 것을 20분씩 발표했다.
우리 팀은 학식 메뉴를 알려 주는 앱을 만들었고, 준비 기간은 6주였다.

[참고 자료]

학교 앞 카페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나는 그 집 아메리카노를 2년째 마시고 있는데, 맛보다도 창가 자리가 좋아서 간다. 시험 기간이면 그 자리가 늘 차 있어서 조금 서운하다.

위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회 후기를 써 줘.

읽는 사람은 같은 학과 학생이다.

300자 안으로, 우리 팀이 만든 것과 준비하며 겪은 일을 넣어 줘.

[참고 자료]의 말투와 짜임새를 따라 해 줘.

ChatGPT 의 답

ChatGPT 화면 캡처

참고 자료의 말투가 후기 문장으로 옮겨 왔다.

Claude 의 답

본보기를 붙인 요청문에 Claude 가 답한 화면

같은 요청문을 Claude 에 보내 받은 화면이다.

두 서비스 비교

ChatGPT

Claude

말투가 옮겨 왔나

짜임새가 옮겨 왔나

문장을 가져다 썼나

본보기가 옮겨 온 것



옮겨 온 것

말투와 짜임새가 본보기에서 왔다.



옮겨 오지 않은 것

내용은 배경 정보에서 왔다.

두 블록이 각각 다른 일을 했다.

길게 넣을수록 가운데를 놓친다

책 한 권을 넣을 수 있다는 광고는 흔하다

긴 자료 안에 정답을 숨기고 위치를 옮겨 가며 물었다.

맨 앞과 맨 뒤에 있을 때는 잘 찾았고,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자주 놓쳤다.

연구자들은 이 현상을 「가운데에서 길을 잃다」라고 불렀다.



많이가 아니라 골라서



많이 넣기

중요한 것이 묻힌다



골라 넣기

중요한 것이 살아 있다

작업대가 넓어진 것과 무엇을 올릴지 고르는 것은 다른 문제다.

세 블록을 한 자리에

따로 배운 세 가지가 사실 한 별이다.



배경 정보

AI 가 모르는 사실을 붙여 준다.



용어집

우리끼리 쓰는 말을 한 줄로 푼다.



참고 자료

따라 할 글을 붙여 모양을 정한다.

셋은 요청문 앞에 함께 붙는다.

맥락 블록 3종

[배경 정보]

AI가 알아야 하는 사실을 그대로 붙인다. 찾아보게 하지 않는다.

셋을 다 쓸 필요는 없다

[용어집]

낯선 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 줄
낯선 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 줄

그 요청에 필요한 것만 고른다

[참고 자료]

이렇게 써 줬으면 하는
글을 통째로 붙인다.

이름을 대괄호로 쓰는 이유

≡ 표시가 없으면

동아리 회비 안내문을 써 줘
작년에는 문자로 보냈다

자료가 지시처럼 읽힌다.

[] 대괄호로 쓰면

[배경 정보]
작년에는 문자로 보냈다
동아리 회비 안내문을 써 줘

지시와 자료가 나뉜다.

교재의 모든 예가 대괄호를 쓴다. 블록 이름은 한글 그대로 써도 된다.

어느 것을 언제 쓰나

빠진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붙일 블록이 정해진다.



AI 가 모르는
사실이 있다면

배경 정보



우리끼리 쓰는
말이 있다면

용어집



말투나 짜임새를
정하고 싶다면

참고 자료

셋을 다 쓴 예

[배경 정보]

동아리 이름 · 활동 내용 · 이번 학기 지출 내역

[용어집]

회비 · 지원금 · 이월금 뜻풀이 한 줄씩

[참고 자료]

지난 학기 회계 보고서 한 편

요청문

위 자료를 바탕으로 회계 보고서를 쓴다.
읽는 사람은 동아리 회원이다.
표 한 개와 설명 문단으로 짠다.
어려운 말은 풀어 쓴다.
금액은 위 자료에 있는 것만 쓴다.

세 블록은 요청문 앞에 붙는다.

하나만 써도 된다



필요한 블록

쓸 것만 고른다.



빈 블록

빈 블록은 비워 둔다.



작업대 낭비

억지로 채우면 자리가
줄어든다.

세 칸을 다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지난주 요청문 5칸

① 역할: 너는 (역할)이다.

② 목표: (목표를 한 문장으로).

③ 대상: 읽는 사람은 (대상)이다.

④ 조건: (수량·포함·제외)

⑤ 형식: (받을 모양)

다섯 칸은 이름도 순서도 지난주와 같다.

칸을 늘리지 않는다



요청문 5칸

내가 원하는 것을
적는 자리다.

5칸은 그대로 둔다



맥락 블록

AI 가 알아야 할 것을
주는 자리다.

요청문 앞에 붙는다

5칸은 그대로 두고 그 앞에 자료를 붙인다.

맥락을 붙인 요청문

너는 (역할)이다.
아래 자료를 먼저 읽어 줘.

[배경 정보]

(사실을 그대로)

[용어집]

(낯선 말: 뜻)

[참고 자료]

(본보기 글)

위 자료를 바탕으로, (목표를 한 문장으로).

읽는 사람은 (대상)이다.

(조건: 수량·포함·제외)

(형식: 받을 모양)

교수 예시 · 붙이기 전

요청문 5칸

너는 대학생 생활 습관 상담을 8년 해 온 학습 코치다.

2주 안에 지각 0회인 상태로 만들 계획을 짜 줘.

읽는 사람은 통학에 지하철을 두 번 갈아타는 1학년인 나 자신이다.

이번 2주 안에 할 수 있는 것만, 다섯 개 이내로, 알람 앱을 새로 설치하는 방법은 빼 줘.

표로 써 줘. 열은 할 일, 언제, 확인 방법.

3주차 교수 예시를 그대로 가져왔다.

교수 예시 · 붙인 뒤

너는 대학생 생활 습관 상담을 8년 해 온 학습 코치다.

아래 자료를 먼저 읽어 줘.

[배경 정보]

월·수 1교시는 9시 시작이고 집에서 학교까지 지하철로 50분, 환승이 두 번이다.

이번 달 지각 다섯 번은 전부 월요일과 수요일이었다.

취침 시각은 새벽 2시 근처이고, 알람은 8시와 8시 10분 두 개를 맞춰 두었다.

아침에 씻고 나가는 데 25분이 걸린다.

[용어집]

1교시: 오전 9시에 시작하는 첫 수업.

환승: 지하철을 갈아타는 것. 갈아탈 때마다 5분에서 10분이 더 걸린다.

위 자료를 바탕으로, 2주 안에 지각 0회인 상태로 만들 계획을 짜 줘. 읽는 사람은 통학에 지하철을 두 번 갈아타는 1학년인 나 자신이다. 이번 2주 안에 할 수 있는 것만, 다섯 개 이내로, 알람 앱을 새로 설치하는 방법은 빼 줘. 표로 써 줘. 열은 할 일, 언제, 확인 방법.

달라진 곳: 자료 블록 둘과 손잡이 두 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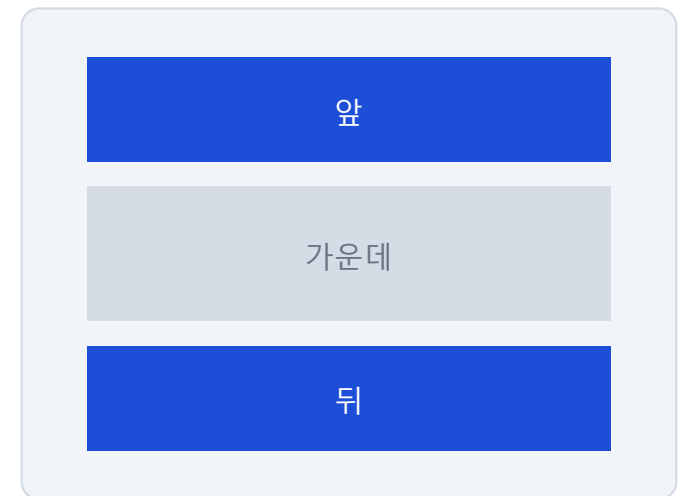
작업대는 넓지만 무한하지 않다

올려 둘 수 있는 자리에는 끝이 있다.

다 넣으면 흐려진다

- 자료가 많다고 답이 좋아지지 않는다
- 관련 없는 자료가 중요한 것을 가린다
- 가운데에 묻히는 자리가 생긴다

중요한 것은 앞이나 끝에 둔다.



앞과 뒤는 읽히고 가운데는 묻힌다

고르는 기준 세 가지



꼭 필요한가

이 요청에 답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가



나만 아는가

내가 아니면 AI 가
알 수 없는 것인가



뜻이 남는가

짧게 줄여도
뜻이 남는가

세 가지를 물어 보고 남는 것만 붙인다.

넣을 것과 뺄 것



넣는다

- ✓ 지출 내역 표
- ✓ 회칙의 결산 조항



뺀다

- 동아리 창립 연혁
- 지난 이야기

그 질문에 답하는 자료만 남긴다.

2교시

이제부터는 직접 실습



지난주 만든 요청문 v2 꺼내기

오늘 실습 네 단계

1

문제 고르기

내 요청문 v2 가 다를
문제를 한 줄로 적는다.

2

블록 채우기

배경 정보·용어집·참고
자료를 골라 채운다.

3

붙여 보내기

요청문 앞에 블록을 붙
여 두 서비스에 보낸다.

4

점검받기

점검자 프롬프트로 빠
진 자료를 찾는다.

내 문제 한 줄 고르기

내 문제:



무엇을 해결하고 싶은가



언제까지 어떤 상태가 되면 되는
가

교수 예시 · 고른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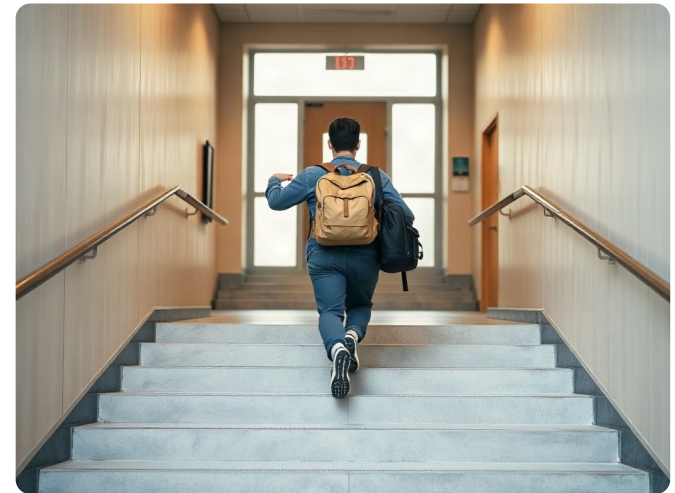
지금

월·수 1교시에 이번 달 다섯 번 지각

바라는 것

2주 안에 지각 0회

지난주 요청문 v2 와 같은 문제다.



교수 예시 · 채운 블록

[배경 정보]

월·수 1교시는 9시 시작이고 집에서 학교까지 지하철로 50분, 환승이 두 번이다.

이번 달 지각 다섯 번은 전부 월요일과 수요일이었다.
취침 시각은 새벽 2시 근처이고, 알람은 8시와 8시 10분 두 개를 맞춰 두었다.
아침에 씻고 나가는 데 25분이 걸린다.

[용어집]

1교시: 오전 9시에 시작하는 첫 수업.

환승: 지하철을 갈아타는 것.
갈아탈 때마다 5분에서 10분이 더 걸린다.

[참고 자료]

비워 두었다

맥락을 붙인 내 요청문

너는 대학생 생활 습관 상담을 8년 해 온 학습 코치다.
아래 자료를 먼저 읽어 줘.

[배경 정보]

월·수 1교시는 9시 시작이고 집에서 학교까지 지하철로 50분, 환승이 두 번이다.
이번 달 지각 다섯 번은 전부 월요일과 수요일이었다.
취침 시각은 새벽 2시 근처이고, 알람은 8시와 8시 10분 두 개를 맞춰 두었다.
아침에 씻고 나가는 데 25분이 걸린다.

[용어집]

1교시: 오전 9시에 시작하는 첫 수업.
환승: 지하철을 갈아타는 것. 갈아탈 때마다 5분에서 10분이 더 걸린다.

위 자료를 바탕으로, 2주 안에 지각 0회인 상태로 만들 계획을 짜 줘.
읽는 사람은 통학에 지하철을 두 번 갈아타는 1학년인 나 자신이다.
이번 2주 안에 할 수 있는 것만, 다섯 개 이내로, 알람 앱을 새로 설치하는 방법은 빼 줘.
표로 써 줘. 열은 할 일, 언제, 확인 방법.

Gemini 의 답

Gemini 3.8 Flash 응답 화면

Gemini 3.8 Flash

배경 정보에 준 숫자가 표 안에 그대로 쓰였다

ChatGPT 의 답

맥락 블록을 붙인 요청문에 ChatGPT 가 돌려준 답 화면

같은 자료를 붙인 요청문에 ChatGPT 가 돌려준 계획이다.

두 서비스 비교

두 답은 같은 요청문에서 나왔다.
세 축으로 나란히 본다.

Gemini

ChatGPT

같은 요청문 · 같은 자료



내 자료를 썼나



지어낸 곳이 있나



바로 쓸 수 있나

맥락을 점검받기

너는 프롬프트를 검토하는 검토자야. 대신 써 주지는 마.

아래 요청문에 붙은 맥락 자료를 세 가지로 검토해 줘.

1 배경 정보가 붙어 있나 / 2 낯선 말이 용어집으로 풀려 있나 / 3 따라 할 본보기가 붙어 있나

출력: 항목마다 있음 또는 없음 한 단어와 이유 한 줄. 마지막에 먼저 붙일 자료 하나.

[요청문]

(여기에 내 요청문을 붙인다)

Claude 를 연다 · 내 요청문을 통째로 붙인다

Claude 의 점검

Claude

맥락 블록 점검 결과 화면

세 항목에 있음과 없음이 한 단어씩 붙어 나왔다.

확인 문제

교재 7장 맥락 템플릿 5단계



네 번째 자리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확인 문제 풀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요청 사항



4단계 자리에 지난주 요청문 5칸이 그대로 들어간다

앞뒤 단계에는 배경 정보·용어집·참고 자료가 붙는다.

안 될 때 여기부터

틀림

- 자료를 붙이지 않고 알아서 찾으라고 함
- 우리끼리 쓰는 줄임말을 그대로 둠
- 빈 블록을 억지로 채움

맞음

- ✓ 알아야 할 것을 복사해 붙이기
- ✓ 낫선 말은 한 줄로 풀어 주기
- ✓ 필요한 블록만 쓰기

맥락 블록은 요청문 5칸 앞에 붙는다

오늘 공부한 내용

AI 에게는 지금 이 대화창만이 세상의 전부다

AI 는 작업대에 올린 것만 쓴다

맥락을 주는 세 가지: 배경 정보 · 용어집 · 참고 자료

요청문 5칸은 그대로. 맥락은 그 앞에 붙는다

많이 넣는 것과 잘 넣는 것은 다르다

다음 주엔 형식과 예시를

오늘 붙인 맥락 블록을 그대로 들고 5주차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 예고

- 형식 지정
- 예시 여러 개 보여 주기



반드시 지참

- 맥락 블록과 요청문 (LMS 제출본)
- 점검 결과와 전후 한 줄